

농어촌공사 양평지사,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 정화 활동

2022년 09월 28일

댓글 0

기사프린트

URL복사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전수현)은 지난 27일 지평면 대평리 대평저수지에서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내고향 물살리기 활동에는 전수현 지사장을 비롯해 지사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저수지 제당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부근에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영농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했다.

대평리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평저수지는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 낚시 이용객과 여행객의 불법투기가 이어져 양평지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평리 주민들도 매월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수현 지사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인원이 찾아 대대적인 환경정화 행사를 펼칠 수 있었다"며 "보다 나은 용수공급은 물론 물을 가꾸고 지키는 환경보호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